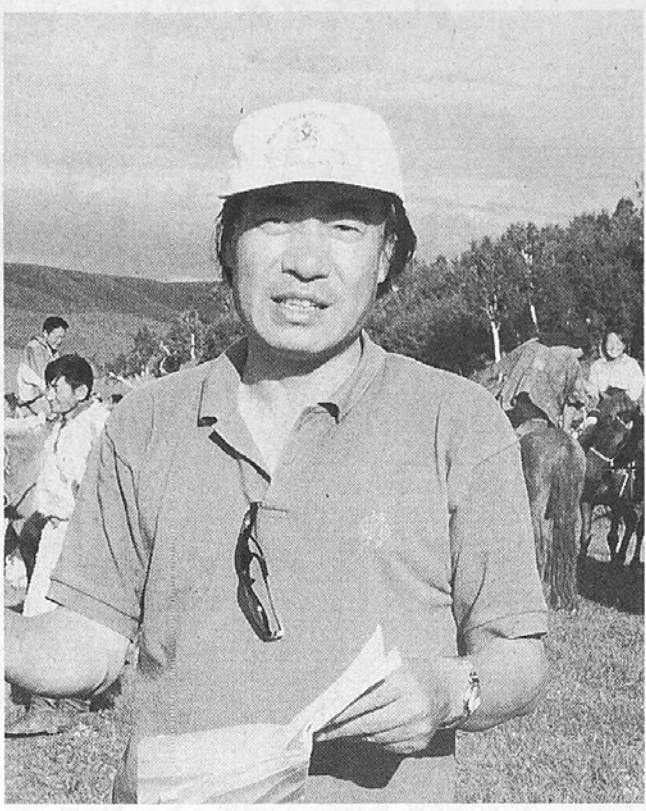


“大悲원력 ‘통일연가’로 영상화”

영화 ‘카루나’ 제작중인 이 일 목 감독

최근 한국 영화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제작되는 불교영화 ‘카루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30여명의 제작비, 연인원 1만명 출연, 국내 최초의 몽골현지촬영 등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카루나’는 불교정신과 우리민화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영상화 작업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몽골 대초원에서 5백여필의 말과 현재 엑스트라들을 총지휘하며 장대한 장면 연출에 여념이 없는 이일목 감독을 만나 ‘카루나’와 불교영화계에 대해 들어 보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근래 보기드물게 민족할 만한 그림을 담게 되었습니다.
- ‘카루나’는 정치도공 가족을 통해 분단의 비극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카루나’는 범어 MATRI KARUNA (慈悲)의 비(悲)를 뜻하는 말로 깊은 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를 논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치가 완전한 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일목 감독

수요 인터뷰

었다.
- ‘카루나’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색채가 강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불교에서 찾고자 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국내 첫 몽고 현지 촬영
▲10년전 가을로 기억합니다. 우연히 강원도 삼척의 등명 락가사를 찾았다가

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통일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다’ 식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가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상대를 끌어안는 자비정신이 통일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불교정신을 영상에 담아 모든 이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조성하는 마음으로 혼신다해 국제 영화제 겨냥... 북한 동포 감상도 모색

해강 유근형선생이 청자로 조성한 5백나한을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색 5백나한은 모두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그 멍은 곧 7천만 우리민족의 멍이었습니다.
이날 남북이 같이 울며 볼 수 있는 통일영화를 만들 것을 결심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조성된 오백나한 청자불상의 시퍼런 멍을 락가사에서 끌어내어 겨레와 50억 전세계인의 눈앞에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장대한 몽골의 초원을 보니 ‘카루나’의 스케일을 짐작케 합니다. 몽골에서의 촬영은 잘되고 있는지요?
▲처음 시도한 몽골 촬영이지만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촬영장면은 5백도적이 약탈을 감행하던 중 아란존자를 만나 감화받은 장면으로 영화속에서는 3분도 채 못되는 분량입니다.
말(馬)과 말을 잘타는 엑스트라 5백명을 구하다보니 몽골까지 찾게 되었고 세계에서 최고의 기마술을 자랑하는 몽골

-그동안 불교소재의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교소재 영화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불교소재의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었다고 봅니다.
불교는 이제 더이상 불교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문화와 정신을 말하다 보면 불교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소재 영화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누가 어떤 감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적 문화영화보다는 불교정신을 소재로한 재미있는 극영화가 많이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영화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현대에 가장 중요한 포교의 방편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카루나’에는 설봉, 정만, 청우스님

과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불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추석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작업은 무엇입니까?
베를린 영화제 출품계획
▲귀국 후 주인공 육소리의 사발신과 낙가사 촬영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8월10일경 호주 BMDW영화사에서 후반녹음작업을 마치고 20일경 2백여 대덕스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추감독은 89년 한국 시나리오 작가 협회장으로 피선된 후 UIP작배반대운동 활동위원장으로 투쟁하다 8개월간 옥고를 치루는 등 우리영화 살리기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우리문화지킴이 일환으로 우리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하시는 데 국제영화제를 겨냥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분단국의 이데올로기 허상을 고발하기위해 전인류에 이영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칸느영화제와 7월 베를린 영화제에 ‘카루나’를 출품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를린영화제에 성격이 맞아 좋은 상작을 기대해도 될것입니다.
또한 1천만 이산가족회추진위원회와 일본 조총련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남북이 함께 있어서 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화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와 팬들에게 한마디...
▲개혁종단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카루나가 만들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민족의 기술이 이영화를 완성하는 대작불사로 이어지기를 합장 기도합니다. 영화인로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과거 불교영화에서 가졌던 선입관을 버리고 ‘카루나’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보고나서 평가해 주십시오.
몽골 비양창드람=이준경 기자

과영석 <한국의민중운동사>의 저자



불교 집안에서 출생하여 실제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의 관습을 바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이십년이 채 되지 않는다.
외가에서는 충남 전통 일대의 자가(自家) 소유의 입야 6만여평에 3개의 절을 짓고 탁발하는 스님을 모셔다, 불사를 일으키는 등 착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집은 대쪽 같은 성미의 할아버지 성화로 가까운 절을 찾아가는 것은 매년 사월 초파일 하루, 그것도 동리 사람들과 구경삼아 어울리듯 찾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국 유교 집안의 가풍(家風)을 지키려던 할아버지도 숙부의 해난 사고 이후에는 절을 찾게 되셨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나 외조모께 동화를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 그런데 우리 선친

며 삶과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배고픔의 고통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나를 가까이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무심코 찾아든 법당의 부처님 앞에 진상된 과일을 집어 먹다가 그 절의 부전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바로 “지옥에 갈 놈이다”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지옥에 갈 미래세계를 그려며 현재를 정말 값지게 살고 있다.
부처님이 계신 절을 찾기도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버려진 어린이들을

“외로운 이웃들은 나의 부처님”

어릴때 들은 ‘지옥에 갈 놈’ 되새기며 불자의 길 걸어

게서 신심을 가지시고 절에 나가시면서 엔일인지가는 하루가 다르게 몰락해 갔다.
초파일에 산불이 나가는 하면, 절에 버락이 떨어져 불에 타고, 나환자들이 산 하나를 점거하는가 하면 산골 폭력배들에게 외조부가 크게 다치시기도 했다.
이렇게 갖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나요, 불교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많았던 내가 성장하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불교와 연관을 지어보고 스스로 처방전도 만들어 실천해 보다가 이제 그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게끔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묘한 것 같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옥에 갈 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병아리 네 마리를 물어죽인 강아지를 혼내 주다며 나무 밑에 묻은 것이 그만 죽게되자 할머니로부터 “지옥에 갈 놈이다”라고 꾸지람을 들은 이래, 학창 시절 여자친구에게 못된 짓을 한 이웃마을의 젊은 목사가 깨심해서 숲길 가운데 합정을 파고 뱀새는 거름을 날라다 그 곳에 빠지게 했을 때도 “지옥에 갈 놈이다”는 말을 들었다.
한 번은 문학자들의 친구가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물에 빠져 저 세상으로 갔을 때 나는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질책을 들어야 했었다.
그래서 한달 가까이 절에서 절로 옮겨가



찾아가 잠시나마 아빠와 오빠가 되어주고, 아파트 관리회장으로 10여년간 재직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세대나 부모없이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소녀 가정들을 찾아 격려하는 것이 이제 일과가 되어 버렸다.
나는 부처님은 법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끝맺음한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어쩌다 혼자 사시

는 어른들께 전화를 거르면 그 분들이 먼저 인부를 전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그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종교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교감을 나누려는 그 마음에서 나는 문득문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실감한다.
그동안 불교아동문화회와 찬불가 제정위원회 일을 맡아오다가 지난 해부터 불교사원봉사연합회 산하단체인 한국방송감정관리소 창립과 조직, 교육 운영관리를 총괄해 오면서 근 1년 동안 바쁘게 지냈다.
불자들이 주축이 된 방송 매체 환경과 시청자 운동에 불을 붙여 우리나라 방송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봉사 노력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좀더 평안히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영어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벗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환승이 그대게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게 다른 사람을 놀기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게 벗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리즈너-이 강의 황광우 이강욱 옮김 신국본 전2권 각권 7,500원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네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코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회랑)
1982-1984 한국 공예가의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림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